

보도 일시	2021. 11. 16.(화) 09:00	배포 일시	2021. 11. 16.(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	책임자	과장 박미경 (044-203-2550)
		담당자	사무관 김하정 (044-203-2549)

한복,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만난다

- 11. 16. 박물관 수석 전시기획자에게 한복 교복 기증 -

우리 옷 한복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장식예술 박물관인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한복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이하 박물관)과 협력한다. 그 첫걸음으로 문체부와 공진원은 11월 16일(화) 오후 3시, 한복진흥센터에서 박물관 수석 전시기획자인 로잘리 김에게 문체부와 공진원이 개발한 한복 교복과 기증서를 전달한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에 알려지고 주목받게 된 결과이다.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 케이팝 스타들이 한복을 무대의상으로 입어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지난 9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로운 한국어 단어로 ‘한복(hanbok)’이 등재*되기도 했다.

* 한류(hallyu), 대박(daedak), 케이 드라마(K-drama), 만화(manhwa) 등 한국어 단어 총 26개 등재

박물관에 기증하는 한복 교복은 끈은깃 덧저고리, 사폭변형바지로 구성된 남학생용 교복과 한복 내리달이(원피스)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단령 덧저고리 원피스 디자인의 여학생용 교복 각 1벌씩이다. 문체부와 한복진흥

센터는 일상에서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복 교복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 2021년 현재 총 81종 디자인 개발, '22년 총 34개교 보급 예정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한복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한복 교복뿐 아니라 전통한복, 생활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선보일 수 있도록 박물관과 협력하겠다. 아울러 한류 스타를 활용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재외공관 한복 체험 등으로 한복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증한 한복 교복 사진



